장수가야 부활 신호탄 올라

장수 삼고리 가야고분 긴급발굴 조사 국비 1억2000만원 확보

문화재청(청장 김종진) 긴급발굴조사(국비 100%) 지원사업에 장수군이 장수가야를 최초로 알린 장수삼고리 가야고분에 대한 긴급발굴 조사비를 신청하여 국비1억2천만원을 확보했다.

이는 비지정 매장문화재 중 주변요인으로 인해 훼손이 우려되는 유적에 대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신청을 받아 매년 전국 10곳 내외에 대한 유적에 대해 긴급발굴조사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장수 삼고리 가야고분은 1993년 장수가야를 세상에 알린 최초의 유적으로 그 의미가 깊으나 현재까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었다.

이번 긴급발굴조사를 통해 유적의 진정한 가치가 재조명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장수군은 3년 연속 긴급발굴 조사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모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이전 지원사업을 통해 노하리고분, 호덕리고분 시굴조사를 실시하여 가야문화유산에 대한 중요성을 파악한 바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앞서 교육을 통해 장수군의 문화유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이 선정에 좋은 영향을 끼쳤으며 이는 다른 지자체에서 본받을 사항이라며 장수군을 치켜세웠다.

류지봉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은 "장수군 최우선 과제인 장수가야 부활의 큰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이를 통해 장수가야가 비상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수=고판호 기자

무주군, 반딧불이 서식 환경 보호 나서

늦반딧불이 서식지 5곳 주변 환경정화 활동 · 안전한 탐사환경 조성 등 추진

반딧불이의 고장 무주군이 천연기념물 제322호이자 무주반딧불축제 소재인 반딧불이의 서식환경 보호를 위해 뛰고 있다.

군에 따르면 무주반딧불축제 반딧불이 신비탐사지로 활용되고 있는 늦반딧불이 서식지 5곳에 대한 서식환경 실태 점검과 위해요소 확인을 마쳤으며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무주군은 우선, 우거진 잡목 제거와 서식지 주변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반딧불이 유충들이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만들기 위해 주력할 방침이다.

또 안전한 탐사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부서 및 유관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탐사로를 정비하고 낙상 위험 구간에는 안전 펜스를 설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기술연구과 최종운 반딧불이 담당은 "민간단체 '반딧불이 지킴이'와 축제가 개최되는 9월 이전까지 지속적인 정화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딧불이의 고장 무주군이 천연기념물 제322호이자 무주반딧불축제 소재인 반딧불이의 서식환경 보호를 위해 뛰고 있다.

무주군에서는 반딧불이의 서식환경을 보호하고 개체 수 증가를 위한 환경보호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반딧불이 지킴이 봉사단(반딧불이 출현지 등에 거주하고 있는 322명의 주민들로 구성)이 발족돼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제22회 무주반딧불축제는 9월 1일부터 9일까지 무주군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 군수-부군수, 국가안전대진단 현장행정

장수군은 단체장, 부단체장의 현장행정 실시를 통해 국가안전대진단에 대한 군민의 관심도 제고 및 현장 의견수렴·반영으로 역동적이고 능동적인 군정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장수군은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기간(2018. 2.5~4.13)의 일환으로 7일 천천면 소재 장판소하천과 9일 산서면 소재 창원정씨종가에 대하여 장수군수(최용득), 부군수(안동환)의 현장행정 등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안동환 부군수를 단장으로 3개반 25명으로 장수군안전대진단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월 23일에는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여 부진부서에 대하여 추진을 독려한 바가 있으며, 오는 15일 중간보고회를 계획 중에 있다.

또한 대진단 기간에 총 607개소에 대하여 안전진단 등 점검을 진행 중이며, 8일 현재 510개소를 추진하여 84%의 추진률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해빙기대책과 병행해 축대, 옹벽, 건설공사장, 절개지 및 낙석위험지역, 노후교량 등 40개소 표본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기타 재난취약시설 및 인명피해 위험시설은 특별관리(관리카드 작성, 관리전담제 실시 등)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장수=고판호 기자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주목받아

무주 안성청소년문화의집, 방과 후 마을학교 운영기관 선정

무주군은 안성청소년문화의집이 무주교육지원청으로부터 2018 방과 후 마을학교 운영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2018 방과 후 마을학교는 교육경험의 장소를 학교 밖으로 확장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교육공동체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선정·운영해오고 있는 것으로, 안성청소년문화의집은 이용 청소년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 마련과 내실 있는 운영으로 주목을 받았다.

무주군 안성청소년문화의 집은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로 조성돼 있으며 댄스와 인터넷, 탁구, 포켓볼, 스포츠 스태킹, 폼 아트, 북아트, 청소년 상담 등의 프로그램과 수화동아리 활동 등을 진행해오고 있다.

올해는 초등학생 대상 '레고교실'과 중·고등학생 '네일아트교실'과 '리본아트 자격증반 교실'을 운영할 예정으로, 2015년과 2017년에는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평가(주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및 종합안전검검(주관 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도 '우수' 등급을 받은 바 있다. (프로그램 신청 및 문의: 안성청소년문화의집 ☎063-323-1582)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영유아 건강증진서비스 업무협약

진안군 보건소와 진안군어린이집연합회(회장 강성숙)가 영유아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을 위해 7일 보건소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상호협력을 기반으로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고, 어린이들의 건강한 신체발달과 올바른 보건의식 향상, 영유아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진안군은 어린이의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건강증진활동에 대하여 상호 협력하고 유행성 질환 안내, 예방접종 안내, 손씻기, 영양·비만·금연 및 절주교육, 신체활동, 구강, 아토피질환 관리방법 등 건강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협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협약을 해지하거나 재 협약을 하지 않으면 1년씩 자동 연장키로 했다.

성을경 보건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업무협력 및 교류 활성화로 영유아 건강증진 관련 사업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메아리

장수읍, 찾아가는 맞춤형복지 홍보

장수읍 맞춤형복지팀은 2018년 1월부터 마을회관 및 경로당을 순회하며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과 지원을 위한 맞춤형복지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장수읍 맞춤형복지팀은 마을회관 뿐만 아니라 장수군자원봉사센터 주최로 펼쳐지는 재능나눔 행사에 동행하여 그곳에 모인 어르신들에게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장수권역형 맞춤형복지에 대해 안내문을 배부하여 설명했다.

또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발굴로 최근 농기계 추락사고로 장기간 입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송천리 송천마을 이모씨와 노환과 장애로 어려움에 처한 개정리 와동마을 서모씨에게 이웃돕기 성금 50만을 지원하였으며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을 연계했다.

이 밖에도 경제적 어려움과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4가구를 발굴해 생필품 등을 지원한 바 있다. /장수=고판호 기자

무주국유림관리소 산림토목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무주국유림관리(소장 김종세)는 2018년도 산림토목사업 추진에 앞서 관내(무주, 진안, 장수, 임실, 남원) 산림토목사업 대상지 인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7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임도, 사방댐, 계류보전사업 등 산림토목사업의 효과와 필요성,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하고 사업 실행 시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통해 원활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며. 산림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보존 및 산림경영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올해 사방댐 5개소, 임도 9.32km를 신설할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 부귀면주민자치위 진안 관문 환경정화 나서

진안군 부귀면주민자치위원회는 7일 국도 26호선 도로변에서 쓰레기 줍기 등 환경 정화활동에 나섰다.

소태정재에서 신리마을까지 약 8km 구간에서 실시된 정화활동은 주민자치위원과 주민, 공무원 등 약 5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정화활동은 겨울철 도로변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고, 거석공원 주변을 말끔히 정리하는 등 진안군 내방객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진행됐다.

/진안=우태만 기자